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선언

“포용적 중도개혁주의 노선 견지”

“탈권위 민주주의 구현... 좌우 넘어 두루 협력”... 돌고래 외교·활력 경제·디딤돌 복지 등 방향 제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 (가칭)가 16일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에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두루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식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식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인재영입위원장등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등 3명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

이준석·김종민·조응천 양향자·금태섭 등도 참석

또한 △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 경제 △K-문화강국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

령화 위기 대응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한 시대 대응 등 7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당명은 가칭으로 사용하던 새로운미래를 확정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요 당직자도 선출됐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

의원, 서효병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최운열 전 의원,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신경민 전 의원, 대변인은 김효은 전 이낙연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이 선출됐다.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차 대우직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날 대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김종민·조응천·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추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이 나란히 참석했다. /뉴스



“더 이상의 지진 피해가 없길” 미국 출장에서 복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6일 오전 9시 일본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시카와현민에게 더 이상의 지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여론조사 왜곡 방지 입법 필요”

민중 유성엽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선거에서 사전에 민의를 교란시키는 여론조사 왜곡의 폐악을 막고 자 관련 법률의 입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 ‘당내 경선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촉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의 주요 골자는 △여론조사 사용 안심번호 유권자 1인당 1회선만 추출 △6개월 이내 개설된 전화 배제 △안심번호 추출수 확대 및 알뜰폰 이용자 포함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당내 경선을 포함해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동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1인당 3개에서 9개까지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언제든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투표란 국가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국민적 의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가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면서 선거의 시작단계



계부터 한법정신을 훼손한 불법과 흡수로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들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 이전 △휴대폰 대량 개통 △1인 2투표 △대리투표 등의 논란이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상 밝혀져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조리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전북 포함 호남권에 서 특히나 활개를 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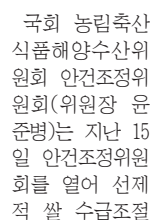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민의를 투명해 본다든 여론조사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는 물론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려는 이들로 인해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선거문과 역시 변질되고 말 것”이라며 “이미 우리의 선거문화는 변질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변경을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선거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대해 정당과 선관위, 국회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국회 농해수위 안전조정위, 농정민생 6법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민주 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농민께 한줄기 희망 되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15일 안전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

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1,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전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락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 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의원은 “어제 농해수위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군산을 동북아 플랫폼 도시로”

민중 김의겸 의원, 군산 지역구 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비례대표) 의원이 16일 군산시청과 전북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남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특구와 상설 당정협의체가 세부 과제로 담겼다.



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고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는 “기자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며 “국회

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으로써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금의 군산시는 아슬아슬하다.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환경은 동북아의 물류와 사람을 끌어모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군산을 사람과 돈이 저절로

모이는 토대, 즉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3대 특구 공약과 상설 당정협의체를 제안했다. 3대 특구는 한·중 물류중심도시, 아시아 관광산업 특화도시, 국제교육중심도시다. 여기에는 △한중경제협력단지 활성화 △국제특관장 설비확충 △군산항 3단계 항로준설 △K-POP 국제화교 유치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담겼다.

상설 당정협의체는 이들 공약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새남금 지역의 개발은 물론, 국가사업 대응과 시·도 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특자도와 군산시, 시의회, 도의회, 국회까지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협의체나 구심점이 없어 현안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군산 경제를 살리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맞서고 싸우며 겨우 우리 뉘을 지킬 수 있는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군산 경제·문화 2배로 키울 것”

민중 채이배 예비후보, 총선 출마 선언

채이배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군산)가 경제와 일자리 전문가임을 강조한 뒤 군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군산 경제·문화를 2배로 키울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그동안 1차 지역심사를 통과하고 군산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한 달 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군산 시민을 만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군산의 경제와 정체가 회복되고 있고 군산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산에 필요한 일꾼은 경제를 알고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인물”이라며 “저 채이배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만큼 군산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채이배 예비후보는 “그동안 1차 지역심사를 통과하고 군산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한 달 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군산 시민을 만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군산의 경제와 정체가 회복되고 있고 군산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산에 필요한 일꾼은 경제를 알고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인물”이라며 “저 채이배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만큼 군산

발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약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1호 공약은 군산 RE100으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2호 공약은 장애인 재활 공학센터 설립을 대표로 하는 장애인 정책이다. 일제강점기 공개토론회 개최를 주장해

왔던 채 예비후보는 “군산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선거를 위해 토론회에 임해달라”고 신영대, 김의겸 예비후보를 향해 촉구했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대표공약으로 군산 RE100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채 예비후보는 “평택에 삼성전자가 45MW규모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하는데 우리 군산은 300MW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므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민간투자유치를 해내겠다”며 “군산 RE100으로 국내 최초 군산 스마트그린 경제자유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그린 경제자유구를 통해 군산을 전북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길, 저 채이배가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새 길 여는 창당 활동 나설 것”

민중 청년당원들 1000명 탈당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과 청년 당원 1000명이 1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신 전 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 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을 없고 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해 권력을 키우고,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는 시민의 삶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온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 길을 여는 창당 활동에 뛰어들겠다”며 “오늘 당을 떠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더 큰 물결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도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 (가칭)에 합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가 어떠한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대신 예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 이후 야권에서는 이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경민·최은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현 전 부천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참여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